

전일동향

전일대비 10.80원 하락한 1,307.80원에 마감

3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0.80원 하락한 1,307.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달러-원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7.70원 하락한 1,310.90원에 개장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와 일본 자민당 선거 결과의 영향으로 환율은 하락 출발했다. 네고 물량이 유입했으나, 역외 매도세로 환율은 1,303원대까지 레벨을 낮췄다. 그러나 코스피 부진에 연동해 환율은 일부 상승했으며, 1,307.8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2.17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10.90	1316.80	1303.40	1307.80	1306.90
	엔화	910.33	914.69	904.80	910.76	-
	유로화	1455.68	1457.54	1444.46	1447.3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22	-7.06	-12.33	-20.32
	결제환율(수입)	-1.9	-6.1	-10.55	-16.9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중동 지정학 긴장감 고조에...1,32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07.80) 대비 17.45원 상승한 1,322.7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 지역 확전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쏠림 현상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포격 등 중동 전면전 위기가 고조됐다. 이에 국제유가는 5% 이상 급등하고,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0.41%, S&P -0.93%, 나스닥 -1.53% 하락 마감했다. 미국 동남부 주요 항구 노동자 파업에 따른 공급망 위기 발생 우려에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됐다. 한편 유로화는 렌 EBC 정책위원의 10월 금리인하 발언에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확대로 소폭 상승했다. 중동 리스크 증가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확대되며 국내증시 외국인 순매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외인 자금 유출 예상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는 금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업체 이월 네고 물량 유입은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20.67 ~ 1330.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000.5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7.45원 ↑
	■ 美 다우지수 : 42156.97, -173.18p(-0.4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0.6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101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